

문학출판을 풍부하게 하는 다채로운 시전집

한글세대 · 해외 신인의 작품과 미발표작 수록

현대적 의미의 첫 시집인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가 나온 지 이제 겨우 70년밖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시집 출판의 역사는 짧다. 그렇다 보니 시 전집 출간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금껏 나온 전집은 주로 해방 전에 활동했던 김소월·김기림·이상·정지용·백석 등과 김수영·김종삼·신동엽·천상병 등 해방 후에 활동했다더라도 시망한 시인, 그리고 서정주·김춘수·구상 등 이미 문학성을 검증받은 노시인이 중심이었다.

한글세대 시문학의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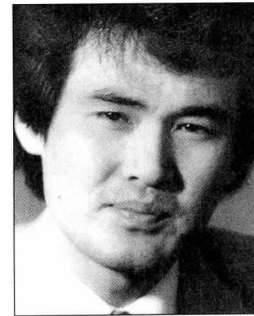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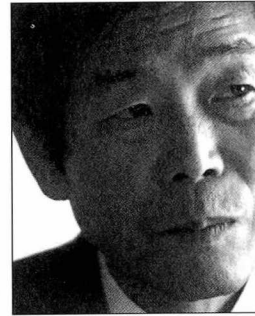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박재삼·황동규·마중기·기형도 등 그 뒷세대들의 전집 출간이 활발해지면서 시 전집 출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들 시 전집은 한글세대 시인들의 작품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을 통해 60년대 이후 현대시의 흐름을 되짚어 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박남수 전집》(한양대 출판원)·《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민음사) 등은 기존 전집 출간의 보충적인 성격을, 《활과 리라》(솔) 등 옥타비오 파스 전집과 《잠 안 오는 밤에 쓴 시》(열린책들) 등 푸시킨 전집 등은 기존의 《보들레르 시전집》·《발레리 시전집》(민음사) 등과 함께 외국문학의 성과를 국내에 옮겨왔다는 의의를 가진다.

지난 해, 타계 1주기를 맞아 나온 《박재삼 시전집 1》(민음사)은 시인이 출간한 총 15권의 시집 중 제1권 《춘향이 마음》에서 제5권 《뜨거운 달》까지 한국적 가락으로 한(恨)을 노래한 시편들이 수록됐다. 민음사는 이후의 시편들 역시 전집으로 묶어낼 계획이다. 《황동규 시전집(I·II)》과 《마중기 시전집》(문학과지성사)은 생존중인 시인의 문학세계를 결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황동규 시

전집》은 1961년 출간된 《어떤 개인 날》(중앙문화사) 이후 지금까지 출간된 10권의 시집에 실린 모든 시를 담아 《시월》에서 《진신마취》에 이르기까지 상상력의 역경을 보여준다. 《마중기 시전집》 역시 50년대 말 등단해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인의 시편을 담아 위의 두 전집과 함께 한글세대의 문학 활동을 결산한다. 1960년 첫 시집 《조용한 개선》 이후 7권의 시집을 한데 묶은 이 전집에서 외국에 살면서도 모국어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은 시인의 왕성한 시작활동을 만날 수 있다.

《기형도 전집》(문학과지성사)은 가장 최근에 활동한 시인의 전집이면서 동시에 그 의미에 가장 가까운



윗줄 왼쪽부터
윤동주, 박재삼,
황동규, 마중기,
기형도 시인.

전집이다. 타계 10주기를 맞아 출간된 이 전집에는 29살의 나이로 요절하던 그 해 출간된 유일한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의 수록작을 비롯해 이후 출간된 《짧은 여행의 기록》(살림)·《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솔) 등에 수록된 시편과 소설, 산문, 그리고 유품에서 찾아낸 일기 일부분과 미발표 원고가 실렸다.

새로 발굴한 내용을 담은 전집도 출간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역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조카인 윤인석씨가 공개한 기록을 컬러사진으로 찍어 수록했다. 1부에는 미발표 시 8편을 포함해 윤동주의 자필 원고가 담겼으며 2부에는 윤동주가 직접 필사해 읽은 백석의 《시습》 필사본을 비롯해 정지용·김영랑 등의 시집에 기재된 자필 메모 등을 수록했다. 부록에는 윤동주가 소장했던 도서 목록, 스크랩 내용 일람 등이 실렸다.

《박남수 전집》(한양대 출판원)은 그간 잊혀진 시인으로 여겨질 만큼 관심이 적었던 한 모더니스트의 시 세계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에게 '포수는 한 덩어리'로/그 순수를 겨냥하지만/매양 쓰는 것은/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구절로 유명한 박남수의 전집에는 그가 50여 년간 쓴 324편의 모든 시를 비롯해 살수대첩을 소재로한 유일한 서사시

《단 한번 세웠던 무지개》와 산문 등이 총망라됐다.

이밖에도 최근 출간된 외국 시인의 전집으로는 중남미뿐 아니라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시의 거장인 옥타비오 파스가 있다. 먼저 나온 《활과 리라》는 시 이론을 담았다. 워낙 이론에 밝았던 시인이라 이후 출간될 전집도 3권 《일상의 불꽃》을 제외하면 모두 이론서가 될 것이라 한다. 러시아의 국민작가로 여겨지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전집은 《대위의 딸》(장편소설)·《예브게니 오네긴》(운문소설)·《벨킨 이야기》(소설집)·《청동기마상》(장편서사시집)·《잠 안 오는 밤에 쓴 시》(시전집) 등 5권 분량으로 출간돼 한 문인의 작품세계에 총체적으로 다가가는 전집의 의미에 충실했다.

문학출판의 영역을 넓히는 시 전집 출간

대부분의 작품은 불과 한 뼘을 넘지 못하나, 아무나 시 전집을 가지지는 못한다. 오랜 세월의 검증을 거쳐야만 전집 출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뤄지는 다양한 종류의 시 전집 출간이 60년대 이후 문학 활동을 결산하고 미발표작을 발굴·수록, 결정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며, 해외 문인의 전체적인 모습도 담는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 출판을 풍부하게 채워주고 있다.

— 김연수 기자

<시 전집 목록>

전집명	지은이·엮은이	출판사	발간연도
구상 시 전집	구상	서문당	1986
김기림 전집(전5권)	김기림	심설당	1988
김달진 전집(전2권)	김달진	문학동네	1997
파인 김동환 전집(전5권)	김영식 엮음	국학자료원	1995
김상용 전집	김학동	새문사	1983
김소월 시 전집	윤주은 엮음	학문사	1994
소월 김정식 전집	정정규 엮음	한국문화사	1994
원본 김소월 전집	오하근 엮음	집문당	1995
정본 김소월 전집	오하근 엮음	집문당	1995
김수영 전집(전3권)	김수영	민음사	1981
김종삼 전집	장석주 엮음	창하	1990
김춘수 전집	김춘수	문장	1986
김춘수 전집	김춘수	민음사	1994
김춘수 시 전집	김춘수	서문당	1986
김현승 전집(전2권)	김현승	시인사	1985
박인환 전집	박인환	문학세계사	1986
박목월 시 전집	박목월	서문당	1993
백석 시 전집	이동순 엮음	창작과비평사	1987
서정주 전집(전5권)	서정주	민음사	1994
신동엽 전집	신동엽	창작과비평사	1975
오장환 전집(전2권)	최두석 엮음	창작과비평사	1988
이상 전집	김해경	울유문화사	1994
이상문학전집(전4권)	이승훈·김윤식 엮음	문학사상사	1989
이상화 전집	김학동 엮음	새문사	1987
이용악 시 전집	윤영천 엮음	창작과비평사	1988
정지용 전집(전2권)	정지용	민음사	1993
조지훈 전집	조지훈	나남출판	1996
천상병전집(전2권)	천상병	평민사	1996

* 교보문고 · 종로서적 자료 검색 * 절판되지 않은 시전집 가운데 기사에 언급하지 않은 목록만 수록.